■李대통령 연일 대일 강경발언 배경·전망

과거사 문제 日 태도 변화 거듭 압박

광복절 축사 독도 언급 안해 추가 자극 자제

이명박 대통령이 '독도 방문'에 이어 '일왕 사과'와 '위안부 문제' 발언까지 일본을 향해 연일 강경한 태도를 보이고 있어 그 배경에 대해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이 대통령은 광복절인 15일 경축사에서 일본군 위안부 문제에 대해 "인류의 보편적 가치에 반하는 행위", "전시(戰時) 여성인권 문제"라고 규정하면서 일본 정부의 책임 있는 조치를 촉구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한일 관계와 관련, 독도 문제를 거론하지 않았지만 일본군 위안부 문제는 직접적으로 언급했다.

이미 지난 10일 이뤄진 독도 방문으로 국정 최고책임자의 국토 수호 의지를 충분히 보여준 만큼 이에 대한 발언은 자제하고 과거사 문제를 거론하며 일본의 태도 변화는 거듭 압박한 것으로 해석된다. 특히 일본군 위안부 문제를 양국 차원의 문제가 아닌 '전시(戰時) 여성 인권문제'로 규정했다.

이 대통령은 전날에도 "(일왕이) 한국을 방문하고 싶으면 진심으로 사과하면 좋겠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이 일왕을 향해 이렇게 직접적인 표현으로 사과를 촉구한 것은 처음이다. 이 대통령은 이에 앞서 지난 10일 역대 대통령으로서 처음 독도를 방문했다.

이처럼 이 대통령이 과거사를 놓고 행동과 말로써 일본을 밀어붙이는 것은 일본 스스로 사과하기를 기대하기는 어렵다고 판단했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사실 이 대통령이 취임 초부터 일본을 이렇게 압박한 것은 아니었다. 이 대통령은 그동안 과거사 해결을 촉구하면서도 줄곧 미래지향적인 양국 관계를 강조했다.

그러나 그동안 일본이 과거사에 대해 반성할 기회를 줬지만 오히려 지난달에는 자국 방위백서에 8년째 독도를 자기 땅이라고 우기는 등 개선의 여지 없이 그냥 시간만 흘려보냈다는 게 이 대통령이 인식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 대통령은 이날 경축사에서도 "과거사에 얽힌 사슬이 미래를 향한 발걸음을 지체시키고 있다"고 말했다.

특히 이 대통령은 노다 요시히코(野田佳彦) 총리에 대한 실망감이 큰 것으로 전해졌다. 이 대통령은 지난해 12월 일본에서 열린 한일 정상회담에서 일본군 성노예 문제에 사과를 요구했지만 노다 총리는 자국 내 극우파 목소리에 휩쓸려 어정쩡한 태도를 취하고 있기 때문이다.

그렇다고 대일 외교정책의 기조가 변하지는 않을 것으로 보인다. 박정하 청와대 대변인은 "양국 간 경제를 포함한 여러 분야에서 엄청난 교류가 있다. 외교 정책의 기조에 변화는 없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 역시 경축사에서 일본에 대해 "미래를 열어야 할 중요한 동반자"라고 강조했다.

그럼에도, 한일 간에는 당분간 외교 마찰이 지속될 전망이다. 이 대통령의 독도 방문 이후 한일 재무장관 회담이 일본의 요구로 연기되고 일본 민주당 정부에서 처음으로 일부 각료가 야스쿠니 신사를 참배하는 등 일본 쪽 반발은 계속되고 있다. /박지경기자 jkpark@kwangju.co.kr

"李대통령, 말보다 실천"

일제징용피해자들 촉구

일제강점기 징용 피해자들이 이명박 대통령에게 실질적인 외교적 보호권 행사를 촉구했다.

일제피해자공제조합과 근로정신대 할머니를 위한 시민모임 등은 15일 성명을 통해 "이 대통령의 광복절 경축사 등이 '빈말'이라는 의구심을 사지 않으려면 일제 피해자들을 위한 실질적인 외교정책을 펼쳐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들 단체는 정부가 한일 군사정보포괄보호협정을 극비리에 추진한 사실을 들어 이 대통령이 한·일 간 문제 해결을 위한 실질적인 행동은 하지 않았다고 비판했다.

이어 지난 2004년 일제강점하 피해 진상 규명 등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발족한 '대일항쟁기 강제동원 피해조사 및 국외 강제동원 희생자 등 지원위원회' 활동이 올 연말로 종료되지만 정부가 기구 운영을 연장하지 않을 방침이라고 밝힌 사실도 '말이 앞선' 사례로 들었다.

또 지난 5월 일제 강제 징용 피해자들에 대해 일본 기업이 배상 의무가 있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는데도 정부는 "1965년 한일협정에 포함된 것으로 정부가 일본에 별도로 요구할 것은 없다"며 '민간의 일'이라는 태도를 보인 데 대해서도 유감을 표명했다.

/최권일기자 cki@kwangju.co.kr

'박종우 구하기' 나선 위안부 할머니들

IOC 항의 서한문 전달

일본군 피해 할머니들이 런던올림픽 남자축구 한일전에서 '독도 세리머니'를 펼친 '박종우 선수 구하기'에 나섰다.

위안부 피해자 보금자리인 경기도 광주시 '나눔의 집'은 14일 오후 대한체육회를 방문해 '정치적 행위 금지' 조항을 어겼다는 이유로 박종우 선수 제재를 논의 중인 국제올림픽위원회(IOC)에 보내는 항의 서한문을 전달했다고 밝혔다.

이날 방문에는 나눔의 집에서 생활하는 위안부 피해자 김순옥(91), 박옥선(89) 할머니와 나눔의 집 안신권(51) 소장, 고양시 독도사랑회 길종성(51) 관장 등 10여명이 함께 했다.

이들은 서한문을 통해 "IOC가 일본 제국주의 상징인 욱일승천기를 입고 경기에 나선 일본 체조선수는 묵인하고 고의성 없이 관중석에서 던진 종이를 들고 '독도 세리머니'를 펼친 한국 축구선수에 대해 정치적 행위 운운하며 제재를 논의하는 것은 차별적 탄압"이라고 항의했다.

또 "이미 한반도기를 통해 올림픽 개막식에 허용되었던 독도 표기를 새삼 정치적으로 해석해 제재를 논의한다는 것은 IOC와 FIFA의 일관성과 올림픽 정신에도 어긋난다"며 "IOC와 FIFA의 향후 결정을 지켜볼 것"이라고 경고했다.

/연합뉴스

하타 유이치로 일본 국토교통상이 15일 오전 야스쿠니(靖國)신사를 참배하고 있다. 2009년 9월 민주당 정권 출범이후 각료가 8·15에 야스쿠니신사를 참배한 것은 처음이다. /연합뉴스

국회 문방위, 17일 '독도 세리머니' 등 논의

여야는 17일 국회 문화체육관광방송통신위원회 전체회의를 열어 '국립현대미술관 화재', 올림픽 축구대표팀 박종우 선수의 '독도 세리머니' 등 관련 안건을 논의하기로 했다.

여야는 이날 문방위 전체회의에서 박종우 선수의 독도 세리머니에 따른 메달 박탈 위기, 독도 세리머니와 관련해 대한축구협회 등이 일본에 유감을 표명하는 공문을 보낸 사안도 다룰 예정이다.

또한 경복궁 옆 국립현대미술관에서 발생한 화재사건에 대해 관련부처의 긴급 현안보고를 받고 대책, 개관 일정 등을 질의할 예정이다.

민주당측은 문방위에서 파업언론사 청문회 건도 다루자고 제안했지만, 새누리당측이 부정적인 입장을 밝혀 합의점을 찾지 못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종행기자 golee@kwangju.co.kr

日 민주당 정권 첫 야스쿠니 참배

일본의 민주당 정권에서 처음으로 각료가 야스쿠니(靖國)신사에 참배했다.

15일 교도통신에 의하면 마쓰바라 진(松原仁) 국가공안위원장 겸 납치문제담당상과 하타 유이치로(羽田雄一郎) 국토교통상이 일본의 2차 세계대전 패전일인 이날 A급 전범이 합사된 야스쿠니신사에 참배했다.

2009년 9월 민주당 정권이 출범한 이후 2차 세계대전 종전일에 각료가 야스쿠니신사에 참배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초당파 의원연맹인 '다 함께 야스쿠니신사에 참배하는 국회의원 모임'에 소속된 여야 국회의원(참의원과 중의원 의원) 약 50명도 이날 야스쿠니신사에 참배했다. 또 국회의원 약 40명은 대리인을 보내 참배했다.

하지만, 노다 요시히코(野田佳彦) 총리를 포함한 다른 각료는 야스쿠니신사에 참배하지 않았다. /연합뉴스

▮ 현장과 시각 ▮

국회의원의 책임과 의무

이종행〈정치부 기자〉

'책임'(責任)의 한자 풀이는 흥미롭다. '책'(責)의 본래 뜻은 진 빚을 갚기 위해 일한다는 의미다. 회초리를 본뜬 상형에 재물(貝)을 합한 글자로 재물을 빌렸다 제때 갚지 못하면 채찍질하고 꾸짖는다는 옛 풍습에서 나왔다고 한다.

'임'(任)에서 임(壬)은 베틀의 모습을 본뜬 것으로 백성들의 베짜기를 감독하는 관리라는 뜻이 있다고 한다. 그 앞에 '인'(人)이 붙은 '임'(任)은 옛날 중국 은나라 때부터 중앙 관리나 지방수령의 의미로 쓰였다.

공직사회에서 '임지'(任地) 혹은 '부임'(赴任)한다는 말이 쓰이는 배경이다. 결국, 책임은 본래 그 의미와 쓰임이 공직사회에서 출발했다고 할 수 있다. 그래서 공인들에게는 유독 엄격하고 도덕적인 책임의 잣대가 적용되는지도 모른다.

최근 자동차부품 생산업체 ㈜에스제이엠(SJM) 노조원 수십 명을 폭행해 물의를 빚은 '컨택터스'의 또 다른 폭력사건의 변호를 맡아 논란을 일으킨 민주통합당 임내현 의원(광주 북구을)의 처신을 보면 과연 국회의원으로서 책임의식이 있는 것인지 의문스럽다.

임 의원은 지난 8일 논란이 일자 언론 등 외부와의 연락을 끊은 채 돌연 휴가를 떠났다. 당시 임 의원 측은 이번 논란과 관계없이 애초 예정된 휴가를 떠난 것이라고 말했다. 임 의원과 연락이 닿은 것은 지난 13일. 연락이 두절(?)된 지 닷새만이다. 그사이 논란도 많이 수그러들었다.

임 의원은 광주일보와의 전화통화에서 "보좌관이 외부 연락을 잠시 안 받는 게 좋을 것 같다고 조언해 외부와의 접촉을 잠시 끊었다"며 "당시 컨택터스에 대해 전혀 몰랐고 변호인의 윤리대로 했을 뿐"이라고 해명했다.

떠날 땐 아무런 해명 없이 갔다가 돌아와선 자신의 보좌관에게 책임을 떠넘기는 꼴이다. 임 의원이 말한 대로 자신의 과거 변호 전력에 전혀 문제가 없었다면 왜 당당하고 떳떳하지 못했을까. 의문스러울 뿐이다.

현재 임 의원의 신분은 변호사이자 국회의원이다. 하지만, 현재 변호사로서 역할 보다는 국회의원으로서 역할에 더 충실해야 한다는 점에서 공인으로서 책무를 한시도 잊어서는 안 된다. 의혹이 있다면 해명하고 잘못이 있다면 사과해야 하며, 오해가 있다면 떳떳하게 풀어야 한다. 거센 바람이 불면 몸을 숨겼다가 그치면 다시 나타나는 건 '꼼수'나 다름없다. 자신이 한 일에 대해선 반드시 책임을 져야 한다는 것이다.

변호사 윤리규칙(제19조1항)을 보면 변호사는 의뢰인이나 사건의 내용이 사회 일반으로부터 비난을 받는다는 이유만으로 수임을 거절해선 안 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것이 변호사에게 요구되는 덕목 중 한 가지라면, 국회의원의 최대 덕목은 '책임 있는 자세'다. 미처 몰랐다면 새겨들을 일이다.

/golee@kwangju.co.kr

부동산 경매, 유동화 자산매각 전문회사
ASSET KOREA since 2005
주식회사 에셋코리아
경매에 관한 모든 상담 062-236-3400
광주광역시 동구 지산동 714-73 [2층] (법원 앞에서 70m 변호사회관 옆 건물) 또는 (지산 주유소에서 법원 쪽으로 20m)
최고수익률 /세금계산서발급(양도세감면) /신속한명도 /정확한권리분석 / 최상의대출

금주의 추천 물건 대표이사 010-7570-7525

월곡동[볼링장]	쌍암동[대지]	치평동 [모텔]	화순오곡[근린시설]	화정동[예식장]	장성황룡[공장]	도산동[교회]
대569㎡,건1719㎡	대1787㎡	대124㎡,건715㎡	대3234㎡,건4280㎡	대1094㎡,건4489㎡	대3398㎡,801㎡	대772㎡,건786㎡
감정가 22억	감정가 17억5천	감정가 16억	감정가 43억3천	감정가 41억5천	감정가 15억	감정가 9억5천
최저가 12억3천	최저가 9억8천	최저가 8억2천	최저가 12억1천	최저가 21억2천	최저가 6억7천	최저가 4억2천

유동화 자산매각 대표이사 010-7570-7525

☞ 군산[바이오공장] ☜	☞ 완주 봉동(대형공장) ☜	☞ 금동[목욕탕] ☜
▷대지 3025평 ▷건물 597평 ▷감정가격 99억4천 ▷매매가격 38억 (협의후결정)	▷대지 7125평 ▷건물5465평 ▷감정가 135억 ▷매매가 70억 (협의후결정)	▷대지 91평 ▷건물 303평 ▷감정가격 10억 ▷매매가격 4억7천(협의후결정)
☞용봉동[하미스포렉스] ☜	☞ 월산동(주유소) ☜	☞ 군산 (공장)☜
▷대지 4076평 ▷건물 12943평 ▷감정가 515억7천 ▷매매가 160억(시설비별도)	▷대지 230평 ▷건물 105평 ▷감정가 15억5천 ▷매매가 11억 (협의후결정)	▷대지 1999평 ▷건물 687평 ▷감정가 25억 ▷매매가 17억(협의후결정)

근린시설/원룸 정현로이사 010-5879-0005 숙박시설/상가 김규석이사 010-6654-6888 공장/토지 김종원이사 010-8227-7759

도시형 생활주택 부지 매매
▶ 쌍촌동 운천저수지 건너편 명지아파트 옆
대지 427평(매매가 7억6천860만원)
평당 180만원

아파트/빌라 박미란팀장 010-9900-3002 주택/재개발 김수희 중개사 010-8567-4600 근린주택 손해연이사 010-9611-2817

당사 보유 부동산 매각
· 광주대앞(지하)호프,분식60평,원룸형빌라(산수동,백운동)5칸, 계림동 E마트1층1칸
대출 +보증금공제후 실인수가 1천만원 (H.010-6654-6888)

현대공인중개사
공인중개사 자격을 취득 후 24년째 중개업을 하고 있습니다.
다수의 물건과 고객을 확보하고 있어 항상 신속하고 친절하며 책임감을 갖고 고객 여러분의 만족을 위하여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급히 구하는 물건(매매나 임대)
〈건물구함〉
■ 일반상가 건물 : 3억에서 50억
■ 모텔 및 목욕탕
■ 고시원
■ 다가구주택(원룸, 투룸, 쓰리룸)
〈토지구함〉
■ 지역 : 광산구 도천동 하남동 장수동
■ 면적 : 200평~300평, • 용도지역:자연녹지 • 용도 : 주차장
■ 창고용도 300평 정도 대형차량진입가능지역 광주시내 전역
〈모텔 매매〉
■ 서구 객실 20개 대출 4억2천 매도가 8억5천 만원
〈상무지구 토지매매〉
■ 매도가 30억 보증금 7억 임대료 1400만원
■ 매도가 45억 보증금 6억 월2900만원
〈상무지구 토지매매〉
■ 중심상업지역 178평, 360평 매매가 협의 후 결정
■ 자연녹지 353평 30m 도로접, 농지전용 완료, 매매가 협의후 결정
〈토지 매도〉
■ 광산구 도천동 자연녹지지역 2397㎡(725평) 평당 95만원
■ 공장 창고용도로 적합
■ 비아동 자연녹지 11,463㎡(3,468평) 평당 70만원
〈시외 매도물건〉
■ 물류창고부지 : 장성군 황룡면, 장성IC에서 2.5㎞ 계획관리지역 3200평 평당 45만원 농지전용 건축허가 필
T. 062) 371-1900 , 010-2006-0115
상무 우리병원에서 50m 지점 www.85858949.co.kr

가은 부동산
신창동 빌딩매매
-대 지 : 630평
-연건평 : 460평
-보증금 3억5천만원/월1600만원
-매매가 : 상담후 결정
상무지구 건물매매
- 대 지 : 200평
- 연면적 : 150평
- 보증금 : 1억5천만원
- 월차임 : 1500만원 (부가세별도)
- 매매금액 : 29억원
주유소 매매 (동구)
- 대 지 : 300평
- 최고 매출
- 매매가 상담후 결정
첨단산단 공장매매
- 대 지 : 1000평
- 공 장 : 300평
- 매매가 상담후 결정
투자자 모십니다
1억 - 5억 투자자 모심
상무지구 랜드피아 사거리
010-8289-8549

대인동삼일부동산
모텔 목욕탕 및 각종 상가건물
을 빨리 팔고 싶으시거나 임대를 내놓고 싶으시면 저희 부동산으로 오십시오.
저희 부동산은 오래도록 광주시내권 및 시외손님으로 모텔·목욕탕 및 각종 상가건물 사실분과 얻으실 분 손님을 많이 확보하고 있습니다.
사장님께서 소유하고 계신 건물을 팔거나 임대를 내놓고 싶으시면 저희 부동산에서 빠르고 정확하게 일해 드리겠습니다.
다만, 사장님께서 저희 부동산에 내놓으신 소중한 건물은 철저하게 비밀보장하여 조용히 팔아드리겠습니다.
☎(FAX)223-1772 핸011-602-2532
(광주은행 신본점옆, 대인동 소방서건너편)

첨단 신창동 신가동 상가 건물
파실분환영!
(8억~12억계약가능)
《매수자 대기중!》
광주원룸매매
원룸 파실분 대환영!
(매수자 다수 대기중)
《사실분도 문의환영》
(수익률 높은 원룸 많이 있습니다.)
광주 전남 토지매매
파실분 →
빠른 계약가능!
사실분 →
원하는 땅 구해드림!
우림공인중개사
일곡지구 중심상가 밀집지역내 위치
010-3622-6076
062)576-8484

상무랜드공인중개사
상 가(매매)
■봉선동 1층복합 상가 323평 평당1,200만원(38억) 보증금 20억 월임대료 1,200만원
■봉선동 1층복합 상가 121평 평당1,730만원(21억) 보증금 2억 월임대료 1,200만원
■첨단 1층복합상가 205평 평당707만원(14억5천만) 임대보증금 1억 월임대료 1,000만원
■두암동7층건물 164평 건물약600평(31억) 임대보증금 약5억 월1,500만원
토 지(매매)
■(상무지구)469㎡(142평)-매가 평당 1,200만원 (유흥가능,식당영업중)
■(상무지구)833㎡(252평)-평당 1,200만원(상무지구) (번화가 사거리코너)
■(상무지구)1,980㎡(600평)-평당1,200만원(상무지구) (유흥가능)
■(상무지구)3,400㎡(약1,000평) 평당750만원(시청앞) (회사사옥,오피스텔등 적합)
■(동림지구)준주거지 운암~하남간대로변)4,470㎡(약1,352평) - 평당330만 (예식장 적합)
맞춤주문 받습니다. 원하시는 물건 찾아 드리며, 정리하실 물건 팔아드리겠습니다. ★아무때나 전화 주십시오★
☎(FAX)383-5221 핸011-609-5221
(상무지구 이바돔 감자탕 1층)